

R-3. 초진 치주 환자의 심미 인지 연구

조민희*, 강제혁, 조윤정, 하홍우, 김성조, 최점일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목적 및 연구방법

치주 질환의 처치를 목적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의 심미 인지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부산대학교 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 (총 2200여명, 남 1200여명, 여 1000여명, 20세-69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에 의한 응답 기록을 토대로 통계 처리하였다.

결과

총 6개 항목으로 심미 인지에 관해 조사하였다. 총괄적 인지 순위는 ‘좀 더 하얀 치아를 원하십니까?’ (53.4%) >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못 해 보기 싫습니까?’ (33.5%) > ‘치아의 뿌리가 길게 드러나 보기 싫습니까?’ (30.4%) > ‘앞니가 벌어져 보기 싫습니까?’ (27.9%) >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드러나 보기 싫습니까?’ (18.6%) > ‘보철물 주위 잇몸색이 푸르게 죽어 보입니까?’ (16.8%)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 보면 ‘좀 더 하얀 치아를 원하십니까?’ 항목과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드러나 보기 싫습니까?’ 항목의 해당자 비율은 20대가 가장 높았다. ‘치아의 배열이 고르지 못 해 보기 싫습니까?’ 항목과 ‘치아의 뿌리가 길게 드러나 보기 싫습니까?’ 항목에서는 30대가 많았고 ‘앞니가 벌어져 보기 싫습니까?’ 항목과 ‘보철물 주위 잇몸색이 푸르게 죽어 보입니까?’ 항목은 40대가 가장 많았다. 설문 항목의 해당자들을 성별로 구분했을 때, 각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결론

치주과에 내원한 초진 환자의 심미 인지의 우선 순위를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이 정보는 궁극적으로 치주 질환 환자를 포괄적으로 치료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